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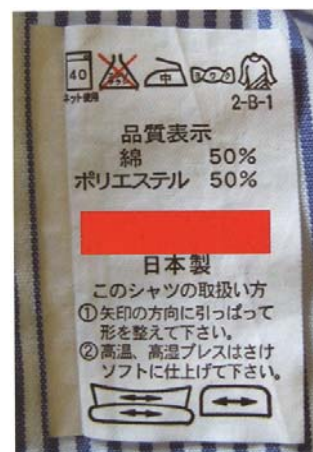
228.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

(95) 사용 원단의 부위별 로트 차이

□ 사용 원단의 부위별 로트 차이

해설)

- 클리닝 후 신사 드레스 셔츠의 옷깃 부분과 몸판 부분의 색상이 바뀜. 소비자는 구입 직후에 같은 이상을 느껴 메이커에서 옷깃 부분을 바꾸어 주었다고 함. 이것이 이 제품의 색상차 원인이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형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블랙 라이트로 관찰한 결과, 옷깃 부분과 몸판 부분에서 형광 상태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.
- 같은 스트라이프 무늬의 원단이나 제작공정에서 형광염료가 사용된 흰 실이 사용된 것과 형광 염료가 없는 흰 실이 사용된 로트가 존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. 제작 공정에서 흰 실에 다른 로트의 것이 혼재하고 있어, 몸판과 옷깃 부분에 사용된 원단의 차이가 난 것으로 생각됨.



- 소비자는 구입시 이 미묘한 차이를 깨닫지 못했지만 클리닝 후 검품에서 로트차를 느끼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음.

- 한편, 몸판 부분과 옷깃 부분이 같은 로트의 원단을 사용하였다고 전제하면 심에 형광 염료를 포함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.
- 같은 심을 사용하고 있는 가슴받이 부분과 몸판 부분을 비교하면, 같은 몸판과의 명도차를 볼 수 있으며, 클리닝시 프레스에 의해 원단과의 밀착이 진행된 것으로 형광 효과가 늘어나 몸판 부분과의 명도차이가 생긴 것일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음.

♠ 자료출처 : 송종욱 역, 세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류 사고사례 도감, 한국세탁업중앙회, 2011

www.textilecare.kr